

III

건강 형평성 제고 방안

1. 정부 정책 방향

○ 해외 주요국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불평등 악화 문제에 대하여 정책 입안자 및 규제 기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2021년 1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외 기후 위기 대처에 관한 행정 명령을 발표하며,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보건복지부(HHS)는 기후변화와 건강 형평성을 다루기 위해 기후변화 및 건강 평등 사무국(Office of Climate Change and Health Equity; OCCHE) 설립을 포함한 기후 행동 계획을 제정하였음
- 2023년 7월 바이든 행정부는 폭염에 대한 대응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해 취한 다양한 조치를 발표하고, 기후 위험과 관련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음을 밝힘(The White House 2023. 7. 11)
 - 2022년 바이든 행정부는 지역사회 정책입안자에게 폭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Heat.gov를 출시하고, 기후 전망, 폭염 대비 방법, Bipartisan Infrastructure Law¹⁾와 Inflation Reduction Act²⁾를 활용하여 폭염에 취약한 소외된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IHEAP)에 2022년에만 38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하고, 저소득 가구의 냉방 비용 절감 및 에어컨 구매 등을 지원함
-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워싱턴 대학, 알래스카 대학 및 아이오와 주립대학에 39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기후 위험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역 기반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EPA 2023. 2. 27)
 - EPA는 지역 기반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가 물 관련 인프라, 수질 및 지역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알래스카 원주민 지역사회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고자 함
- 호주의 시드니 지역보건청은 팬데믹이 건강 형평성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형평성 중심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였음(윤강재 2022)

1) Bipartisan Infrastructure Law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원함(<https://www.whitehouse.gov/build/guidebook/>)

2) 미국은 탄소중립(Net Zero)을 추구하기 위해 2022년 8월 Inflation Reduction Act(IRA)를 통과시킴

- 건강영향평가의 목적은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있거나 가정폭력에 노출된 사람들 등 팬데믹에 취약한 계층에게 코로나19의 영향이 불균형적으로 컸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임
- 지역보건청은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및 전략을 사전에 마련하고자 함

○ 건강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취약계층의 생활기반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기후변화 저감 노력을 통해 건강 위험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 우리나라 정부는 2022년 폭염종합대책을 통해 폭염 대비 피해저감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으나, 미래 폭염 재난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음(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3. 5), “2023년 폭염 종합대책”)
 - 지자체는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내 무더위쉼터를 지정·운영하였으며, 폭염특보 발효 시 논발 작업자에게 가두방송(街頭放送)을 하고 야외근로자를 위한 온열질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도입하였음
 - 그러나 피해 예방 중심의 단기적 대응에서 더 나아가 기후변화 관련 연구를 통한 정교한 대책 마련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한 시점임
- 정부는 기후 및 보건 전문가를 육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장기적인 역량을 구축해 나가야 하며, 건강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정책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음
 - 정부는 건강 형평성이 반영된 지역사회 공중보건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사항을 공중보건 정책에 포함하도록 제도화할 수 있음
- 지역자치단체는 취약계층·지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보건 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음
 -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노숙인 등이 폭염 시 쉴 수 있는 무더위쉼터를 마련하고,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 및 돌봄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 건강 관리 자원 및 접근성이 부족한 취약 지역에 병원, 공중보건 시설을 확충하고, 기후 관련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후변화를 줄이려는 노력을 통해 이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임
 - 정부는 기후변화를 저감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도시계획, 토지 이용, 에너지 정책 등을 추진하여야 함³⁾

3) 예를 들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대기오염 관리 시설 설치 공장 등 기후위험 감축 산업 분야에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화석 연료 산업에서 녹색 일자리로 노동자의 직업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음

-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보편적 건강 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실현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모든 국민이 과도한 비용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질병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조하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성을 확대하는 경우, 특히 취약계층의 경제적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건강 불평등을 축소할 수 있음

2. 보험회사의 대응 방향

- 보험회사는 지역자치단체, 연구 기관 등과 협력하여 건강 관련 보건 정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 및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건강시스템 및 정책을 위한 EU 관측소(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는 정책 입안자에게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보험산업과 협력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야외 노동자, 독거노인 등 기후 위험에 취약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험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영국 보험회사 Aspen은 건설업 종사자의 정신건강을 보장하는 보험을 출시한 바 있으며(Insurance Times(2023. 11. 14), “Aspen to support mental health in construction industry with ‘first of its kind’ London market product”), 이와 유사하게 국내 보험회사도 기후 위험에 취약한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일부 지역자치단체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 진단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보험회사와 협력하여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장을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을 통해 보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지역자치단체, 연구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데이터 및 IT기술 기반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 증진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음
 - KB손해보험은 인공지능기술 개발 전문사 아크릴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함(한국금융(2023. 2. 22), “KB손보-아크릴, 취약계층 건강증진 서비스 MOU”)
 - 보험회사는 지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소외계층에게 건강관리용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건강 관리 교육 및 기후 재난 발생 시 건강 위험 알림을 제공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기후 위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저소득층을 위해 소액보험상품을 제공함으로써 포용적 보험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보험회사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업하여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장성 소액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성과가 뚜렷하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시장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석승훈·홍지민 2022)
 - 보험회사는 공익사업 형태의 단기적인 보험료 지원이 아니라, 다양한 소액보험상품을 개발·제공하여 시장 중심으로 소액보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기후 위기 대응 및 상생금융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소액보험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지수보험 형태의 상품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지수형 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빠른 보험금 지급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보험 가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음
- 한편, 국내 보험회사는 개발도상국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소액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음
 - 영국 기반의 소액보험 전문 보험회사 Blue Marble은 인도에서 자영업 여성 협회, 지역 보험회사인 ICICI Lombard와 협력하여 비공식 경제⁴⁾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시 임금 손실을 보상하는 소액보험 상품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음(Blue Marble, “Innovating to Protect Vulnerable Women Workers From Extreme Heat”)
 - 또한 Blue Marble은 Nestlé Nespresso와 업무 파트너십을 맺고 콜롬비아 칼다스의 커피 농부들에게 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지수형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기후변화에 대한 고객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험 감소 노력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얻을 수 있음

- 보험회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험에 취약한 소외 계층을 위한 건강 상담·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헬스케어 관련 물품의 도소매 판매·중개·배송, 건강기기 업체 등에 투자할 수 있음
 - 2021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회사와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헬스케어 관련 업무가 확대되었음(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 8. 23), “금융규제혁신 ① 금융회사의 플랫폼 업무 활성화 및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②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추진”)
- 보험회사는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의료,

4)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는 정부에서 과세하지 않고 모니터링하지 않는 경제의 일부로, 개발도상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인도의 비공식 경제에서 여성들은 매우 더운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함에 따라 폭염에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음

처방약 배달 서비스 제공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미국의 건강보험회사는 우편 기반 약국(Mail-order Pharmacy)⁵⁾에 투자 또는 협업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 있음
- 보험회사는 위험 감소 노력을 한 소비자에게 보험료 할인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 증진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소구력을 높일 수 있음
- 글로벌 보험회사 Generali는 개인의 위험 감소 노력 및 친환경 행동(Green Behaviours)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고객의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힘(The Geneva Association 2024)

〈표 III-1〉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경영과제

과제		내용
정책과제	기후 관련 보건 정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및 보건 전문가 육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장기적 역량 구축 • 건강 형평성이 반영된 지역사회 공중보건 성과 지표 개발
	취약계층 생활기반시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악한 주거 환경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쉼터 마련 •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 및 돌봄서비스 지원
	기후변화 저감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위험 감축 산업 분야에 정책금융 지원 • 화석 연료 산업에서 녹색 일자리로 노동자의 직업 전환 유도
경영과제	맞춤형 보험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위험에 취약한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험상품 제공 •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건강 관리 교육 및 기후 재난 발생 시 건강 위험 알림 제공
	소액보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위험 대비에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소액보험(지수형 보험 등) 제공 • 개발도상국에 소액보험을 제공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
	혁신적 보험상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의 전체 건강 가치사슬에서 혁신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 흐름 다양화 • 위험 감소 노력을 한 소비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

5) 우편 기반 약국(Mail-order Pharmacy)은 처방약을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인증된 미국 약국임